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1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6월 1일 (음력 4월 18일) 금요일

“운명의 13일”...광주·전남 ‘6월 대첩’ 돌입



與·野, 지역 선대위 속속 출범... ‘민주 vs 비민주’ 민주 “압승” 평화 “견제 야당” 바른미래 “새 리더십” 정의 “21% 지지” 민중 “대안세력” 13일간 진검 승부

원(재선거) 2명 등 모두 425명의 일꾼이 새롭게 선출된다. 후보 등록 결과 광주에서는 229명(국회의원 재선거 포함), 전남에서는 741명이 출마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투표 전날인 6월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당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과 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들을 붙이거나 지닌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SNS를 이용한 유권자 선거운동도 가능하나 비방·허위 사실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를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TV토론, 연설도 광역, 기초단체별로 방송 3사를 통해 진행된다.
민주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이 유일하게 맞붙는 광주 동구를 비롯, 전남 목포, 신안, 해남, 강진, 무안 등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광양시청과 화순군수 선거에서는 승부의 라이벌 간 리턴 매치가 펼쳐지게 됐고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정치적 라이벌 간 맞대결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한국당 등 여·야 각 정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을 전후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6·13 대첩’ 13일 간의 피말리는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매머드급 선대위를 앞세워 “짜슬이”, “압도적 승리”를 자신하고 있고, 호남 1당 평화당은 지역구 국회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의미 있는 선전”을 다짐하며 “평화당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과 민중당도 대안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며 각각 ‘정당 득표율 21% 달성’과 ‘광역의회 원내 교섭단체 최초 구성’을 제의 목표로 삼고 당의 역할을 총 집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형 이슈에 묻혀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투표율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지역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64.8%, 제2회 41.3%, 제3회 42.4%, 제4회 46.3%, 제5회 49.8%, 제6회 57.1%다. 전남은 제1회 76.1%를 시작으로 제2회 68.2%, 제3회 65.6%, 제4회·제5회 각각 64.3%, 제6회 65.6%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 400여 지치 일꾼을 선출할 6·13지방선거가 지난달 31일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13일 간의 뜨거운 열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대(非) 민주당 대결 구도 속에 여·야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공약과 인물론을 내세워 표발을 누비고 TV 토론 등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승리를, 지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포진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뒷발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등 초대형 이슈에다가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등에 업은 여당의 독주분위기가 선거 열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 잡음과 이에 반발한 탈당과 무소속 연대 등이 지역 민들의 표심을 얼마 만큼 자극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 마감일 후 6일째, 투표일로부터 13일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0시를 기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후보자 벽보와 플래카드, 유세차량이 곳곳에 등장하고 정당 고유 색상의 복장과 피켓으로 통일한 거리유세단도 교통 요충지나 번화가를 중심으로 첫 공식선거전에 나서면서 뜨거운 유세열전이 펼쳐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사격이 이뤄졌고 트로트와 댄스 경연대회를 방불케 한 선거전도 눈길을 끌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캠프 관계자 간 가벼운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 2명,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81명, 기초의원 311명, 국회의

전남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역대 최고치

소 98% · 돼지 86.5%

전남도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백신접종을 철저히 실시한 결과 항체양성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4월 말 검사 실적에 따르면 전남지역 항체양성률은 소 98.0%, 돼지 86.5%를 기록, 전국 평균 소 97.1%, 돼지 84.8%를 웃돌았다.
2017년 말 소 96.9%, 돼지 73.1%와 비교하면 무려 1.1%포인트, 13.4%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0.1%포인트 올리기도 힘든 점을 감안할 때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구제역 비발생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100% 예방접종과 올바른 집중 방법 지도에 힘썼다.
지난 3~4월에는 도 경계지역 5개 군에서 소를 사육하는 200농가와 항체양성률이 낮은 8개 시군의 돼지 240농가를 일제히 검사했다.

김정환 기자



어깃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26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문제라는 북한 입장만 대변하면서, 대한민국이 미국 동맹국이 아니라 김정은과 한반이 돼 미국에 맞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만 샀다”고 최고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5·26 화담이 사천 비공개로 개최된 점을 언급하면서 “기특이나 국정운영 방식조차 독선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특수한 시안조차 묵단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에 여전히 강한 의지를 가진 것을 확인한 건 분명한 성과”라면서 “다시 김정은의 신용보증인 노릇을 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재차 대변했지만 정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 자료사진=뉴스1



6.13.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가슴 두근거리는 그 날,
투표하세요!
유월의 따뜻한 햇볕같이
우리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 8일(금) ~ 6월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